대행 선사 가르침, 보편적 언어세계로 담다

한마음선원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9월 23~25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이하여 한마음선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6월17~18일 대행선연구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와 9월 23~25일 '뉴 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마음, 과학, 종교' 를 주제로 한마음과학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가 그것이다.

필자는 대행 선사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간 몇 편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두 차례에 걸친 학술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행선사 사상의 연구 방향성에 대하여 떠 오른 생각들이 있어서 이를 기고문으로 작성했으며,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가 과문한 탓이다.

최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그동안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해온 연구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운 현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평소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사상을 토대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본래성품, 그 작용으로서 마음내기 및 현상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나툼 등의 세 가지 상호관계를 '한마음 원리' 로 파악하여, 불교와 과학이 둘이 아닌 관점에서 그 원리를 현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궁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마음, 과학, 종교' 를 부제로 붙인 것은 '지구촌의 공생' 이라는 주제에 대한 방법론의 핵심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과 종교를 한 자리에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갈등, 서로 무관한 독립, 상호 보완적인 대화와 통합 등의 관계로 보지만, 이 외에도 서로 병용하거나 절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종교와 과학을 갈등과 독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마음을 중심으로 대화와 통합의 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열려있는 관점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대행 선사의 사상 속에 충분히 녹아 있던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지나 더욱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대행 선사는 한마음 원리의 기반이 되는 깨달음과 수행법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원리를 현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매우 폭넓은 사상체계를 보여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와 과학은 대행 선사의 사상 연구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연구방향에서는 전통 불교적 맥락에서 대행 선사의 깨달음과 수행방편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 정통성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궁구할 수 있다. 이때는 불교라는 기성 종교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과학적 연구방향에서는 다양한 전문적 분야, 즉 천문, 생물, 지구과학, 의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심리 등 사회과학 및 문학, 교육, 종교와 같은 인문학 등과 관련해서 한마음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마음의 원리와 각 분야의 관계성이 뚜렷하게 정립돼야 하며, 그 원리의 기반은 종교적 영역에서 깊이 다룰 수 있는 대행선사의 깨달음과 수행방편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두 영역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포섭하여 연구해 나가는 것이 대행 선사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 두 연구방향은 때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한마음' 이라는 공통 기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구 방법과 범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의 국제학술대회는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대행선연구원에서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것은 전통적인 비구니 승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대행선사의 종교적 활동상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준다. 특히, 한국불교계뿐만 아니라 비구니계를 위해 대행 선사가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반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맞이해
대행선연구원, 한마음과학원서
6, 9월 각각 국제학술대회 열어

대행선硏 · 과학원 학술대회들
방법 달라도 '한마음 원리' 근본
한국불교 미래지향점을 제시해

한마음과학원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지구촌 공생의 삶을 주제로 삼아 종교, 사회문화, 의학,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그 연구범위의 확장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 방법은 종교학적 연구방법론과도 접점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종교현상을 연구하여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건강한 종교생활 영위와 종교간 대화의 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단일 사찰 단위에서 불교적 관점으로 종교와 과학 등 두 가지 특징을 모두 포용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성이 있다. 그 범위를 넓혀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불교계의 연구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엿보인다.

한편, 양자의 조화와 융합이 늘 성공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형적인 본래성의 영역과 유형적인 현상계의 영역이 서로 둘이 아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과학의 태생적인 성격적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거리가 멀어 보여서 다른 쪽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대행 선사의 사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언제나 조금의 틈도 벌어진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입지적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상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포기한다면 마치 한 나무의 뿌리와 열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 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두 번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서 그동안 보편타당한 진리적 가치를 지향해온 노력의 성과들이 한꺼번에 분출한 것처럼 보이고, 현실생활에 적용시켜온 한마음 사상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의 접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웅크리고 있던 꽃망울이 만개하여 다채로운 색채의 꽃잎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듯이, 앞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곧 감탄으로 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대행 선사의 사상 속에는 이미 그 의문과 감탄 사이의 강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설득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의문과 감탄 사이에는 쉽게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기도 한다. 그것은 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가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므로 일각에서는 대행선사의 사상이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래 전통 불교와 접점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인 〈한마음연구〉를 통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 사상적 정통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머지않아 대행 선사의 사상적 입처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희망도 헛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방식으로 대행 선사의 사상을 이해함에 따른 오해가 있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인 이해의 토대가 다져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대행 선사의 사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주관적 언어세계에 날개를 달아서 보편적인 언어세계로 날아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의구심은 그것을 풀어가는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일 뿐, 대행 선사의 깨달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본다면, 대행 선사의 사상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현재 선불교의 일반적인 현상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언어관을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시적 관점에서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되어온 선불교의 전통성과 그 언어관의 계승은 유지돼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시적 관점으로 전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류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언어관으로 담아내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통성이 특정 언어체계에 의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전통성은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언어로 재탄생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보여준 다양한 색채의 언어세계들은 현대 불교가 미래지향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호 박사는

2018년 서강대 대학원에서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 연구—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행 선사를 조명하는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임제선과 대행선의 비교를 통한 회통성(2022)',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사심관법을 중심으로(2020)',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주인공관법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